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행 <31>

백운은 깊은 골짜기로 모인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용녀가 마음으로 친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일’일 뿐이야.”
학승이 물었다.
“이미 자연적인 일이라면 공양 올리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만일 바치지 않는다면 어찌 자연적인 일임을 알겠는가?”

師示衆云 龍女心親獻 盡是自然事
問既是自然 慮時爲什麼
師云 若不獻爭知自然

조주 스님은 <법화경>에서 용녀가 보배구슬을 가져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을, 거기 분명 용녀가 인위적으로 공양 올렸던 사건을 두고 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학승이 용녀의 현공은 분명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인위적인 일이지 않느냐고 되묻는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분명 용녀의 현공을 자연적인 일로 보았다. <법화경>에 보면 용녀는 보배구슬을 부처님께 올리고 곧 성불했다. 그렇다면 용녀는 귀한 보배를 공양 올리고도 울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된다. 보배를 올리고도 울었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 사건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의 일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자연적인 일인지 인위적인 일인지 알려면 귀한 보배를 공양 올려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가령 부처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도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 두 가지가 없어도 백 천만 억의 수행이 있느냐.”
학승이 물었다.
“도인(道人)이 왔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도인이라면 수행하지 않을 거야.”
학승이 예배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를 들 큰 장소가 있어.”

問 無佛無人處 還有修行也無
師云 除却者兩箇 有百千萬億
學云 道人來時在什麼處
師云 你與麼即不修行也 其僧禮拜
師云 大有處著你在

수행은 그런 것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일종의 훈련이다. 조주 스님은 이런 수행은 설사 부처가 없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백천만억의 수행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세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세계는 사람 말고도 많은 생명이 있다. 그들 중 동물의 세계를 관찰해 보면 거기에도 그런 것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법칙이 행해지고 있다. 서열이 있고 약자는 사라지고 강자는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있다. 그러한 법칙을 인간의 잣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연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공평한 법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서로 서로 그 법을 이어나가도록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준다. 그들만의 수행인 것이다. 또 식물의 세계에서도 유전을 통한 진화라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법을 지켰을 때는 순조롭게 진화하지만 법을 어겼을 때는 사멸하고 만다. 이러한 냉혹한 법칙을 식물들도 대대로 경험을 통해 안다. 따라서 식물의 세계에서도 훈련이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알 수 없는 많은 세계에서도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수단 가지 수행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주 스님의 관점에 대해 학승은 도를 터득한 도인(道人)을 내세워 도인은 수행할 필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주, 자네는 객이야. 백운 따위가 어디에 있느냐?”

問 白雲不著時如何
師云 老僧不會氣象
學云 豈無賓主
師云 老僧是主 衆是賓
白雲在什麼處

이 문답은 명칭에 집착하는 학승을 경계해주는 내용이다. 백운(白雲)은 흘러가는 구름이고 청산(靑山)은 우뚝 솟는 산이다. 골짜기가 깊은 산일수록 백운이 몰려와 모인다. 이것을 비유해 운수납자들은 백운(白雲)이라 하고 총림에서 사람을 지도하는 방장이나 절의 대조사 소임을 보는 사람들은 청산(靑山)이라고 부른다.

백운은 좋은 스승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청산에 얼마간 머물다가 곧 떠나가는 자유로움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운수납의 멋스러움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에 반해 청산은 맡은 임무가 있어서 몇 년씩 절을 떠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사람들. 사원의 주지나 총무, 재무 소임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근기가 낮고 우둔해 공부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한동안 대중을 보필하는 복이나 짓겠다고 자원을 사들인다. 그러하므로 가끔 보필을 받는 백운 납자들이 자신들은 우월하고 청산 소임자들은 하열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미숙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이러한 백운들의 오만함을 조주 선사는 꼬집어 준 것이다. 이곳은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만 있지 백운이니 청산이니 하는 명칭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가끔 보면 수행자에게 있어서 명칭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명칭에 목은 메는 자들이 있다. 주지, 의원, 대표, ... 등 이러한 명칭들을 도를 닦는 납자들에게는 한 날 뒷간에서 쓰다 버린 휴지보다도 더 더러운 것으로 알아야 한다. 기상에 대해 모른다는 말은 조주 스님이 백운이 많이 몰려오던지 덜 몰려오던지 상관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방장이 훌륭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통하게 해주면 많이 몰려오겠지만, 선사의 법은 항상 무뚝뚝하고 본질을 향한 한 두 마디가 전부인데, 어찌 미숙한 백운의 심정에 일일이 맞겠느냐는 것이다. 사람이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납자의 간절한 마음에 있는 것이지 선사의 법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은 좀처럼 방황과 격외구를 버리지 않는다.

■ 무불선원 선원장

수행은 그런 것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훈련 선지식의 법은 도를 깨달아도 수행하는 법

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설사 도인이라 해도 수행은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본 <조주록>에서도 노화상인 조주 자신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선문(禪門)에서 수행은 부처의 행을 행하려는 노력이다. 도를 깨달았다고 해도 수많은 진화의 세월 동안 익혀온 습관은 하루아침에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도인도 끝없이 수행해야 한다. 역대 선지식의 법은 도를 깨달아도 수행하는 법이다. 물론 도인의 수행은 좀더 세부적인부분까지 나아가는 수행일 뿐이다. 이것을 모르는 자가 도인이 된다면 그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팔만사천 대지옥을 참관할 기회를 만나고 말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백운(白雲)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기상에 대해서는 몰라.”
학승이 말했다.
“어찌 주객이 없을 수 있습니까?”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12 마조어록(馬祖語錄)

해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수행

<마조어록(馬祖語錄)>은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의 어록으로 <사가어록(四家語錄)>본에는 <강서마조도일선사어록(江西馬祖道一禪師語錄)>이라는 명칭으로 전하고, <고존속어록(古尊宿語錄)>에는 <마조대적선사(馬祖大寂禪師)>라는 명칭으로 전한다. 기타 마조의 법어는 <조당집> <경덕전등록> <종경록> <천성광등록> 및 대혜의 <정법안장> 등에도 전한다.

<마조어록>에는 조사선의 생생한 모습이 엿보인다. 조사선(祖師禪)의 조사(祖師)란 쉽게 말하면 소위 큰스님 혹은 석존의 정법안장을 전승한 사람 내지 수행과 깨침의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상을 일컫는 선종의 말이다. 선종사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크나 큰 긍정을 품소 체득하고 실천한 인물로서 중국의 선사상과 선문화의 바탕에서 형성된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사선은 그와 같은 조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된 일련의 선종과 선수행과 내지 선사상을 아우르는 말이다. 선종으로 말하면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그 존엄성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바람직하고 완전한 인간상을 실현한 사상을 말한다. 수행으로 말하면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는데 있어 제자가지고 있는 바탕을 100퍼센트 긍정해 제자 스스로가 그것을 터득하고 실천하게끔 만들어 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

이와 같은 조사선은 보리달마로부터 전승된 대승의 선법이 바야흐로 흥인과 해능시대에 다져진 개인의 종교적 요구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전개돼 그것을 계기로 한껏 꽃을 피운 시기에 나타난 선법이다. 그래서 조사선의 형성과 그 전개는 시기적으로 보면 인간의 자각이 싹트기 시작해 사회와 문화의 전반에 걸쳐 반성이 요구됐던 중세시대에 해당하면서, 지역적으로는 선법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됐던 강서의 홍주지방과 호남지방이 해당되고, 교단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본래성을 처음부터 철저히 긍정한 소위 남종 내지 그와 유관한 종파가 해당된다.

이와 같이 조사라는 개념은 불교사적으로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수 백년에 걸친 번역의 시대가 지나고, 번역된 경론을 바탕으로 해 본격적으로 불교의 정진을 연구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결과이기도 했다. 때문에 조사선은 가장 일상적인 가르침이면서 구체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개개인의 활동을 전리의 작용으로 긍정하는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발전해 갔다. 그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주도했던 인물이 마조도일이다.

마조도일은 법계상으로는 조계능 - 남악화양 - 마조도일로 이어지는 인물이다. 특히 마조도일은 강서의 홍주지방에서 크게 교화를 펼쳤기 때문에 그 선종을 홍주종(洪州宗) 내지 강서종(江西宗)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전개된 마조의 조사선종은 이후 모든 선종의 그 귀감이 됐다. 조사선 기풍의 특색은 무엇보다도 그 본래심에 대한 자각과 현실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평상시의 마음이 곧 깨침이라는 평상심사도(平常心是道)의 주장이 가능했다. 이 평상심은 개개인이 구비하고 있는 청정무구한 본래심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마조의 “깨침은 세삼스럽게 따로 추구할 필요

가 없다. [道不用修] 다만 본래성품이 번뇌에 물들지 않을 뿐이다. [但莫染污]”는 말처럼 철저한 본래적인 입장에서 마조는 평상심을 강조했다. 애당초 번뇌에 물들지 않고 가장 완전한 자연을 닮은 행위를 평상심이라 했다. 때문에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는 말은 평상심에 완전하게 제할 때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조는 말한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고 제법은 곧 해탈이다. 해탈은 곧 진여이다. 제법은 진여를 벗어나지 않는다. 행주좌와(行住坐臥)가 모두 부사의한 작용이므로 굳이 시절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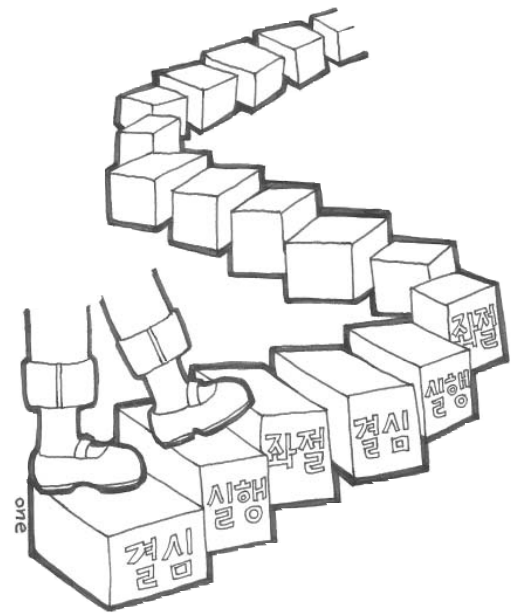
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재재처처(在在處處) 사사건건(事事件件)을 모두 불이라고 말한다.” 마치 수면에다 글씨를 쓰는 것과 같아서 생도 없고 멸도 없으니 이것이 대적멸(大寂滅)이다.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을 그치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이것이 조사선의 가르침이고 조사선이 추구하는 바였다.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행위에 대해 우선 모든 반연을 그치고 만사를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해탈이라 말한다. 그 해탈을 잘 유지하는 행위가 수행이고 보살행이다. 마조는 본래의 자성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자신이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번뇌에 휩싸여 있을 때는 여래장이라 하고 번뇌를 벗어났을 때는 청정법신이라 말한다. 이로써 마조는 조사선을 저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 밑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일상선 내지 활용선으로 끌어내렸다. 조사선이 모두의 민중선으로 현실되는 것이 마조가 바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개개의 인간에게서 발견하고 일상의 행위에서 추구하며 먼 미래가 아닌 지금에 이루어나가는 것이 조사선의 이념이고 풍모였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을 코칭하라!

펄프로 물을 퍼올리기 전 물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펄프에 부여하는 '마중물', 펄프를 작동 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다.
땅 밑을 흐르는 양질의 지하수가 아무리 풍부해도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이를 퍼올릴 수 없듯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코칭'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마중물의 힘>은 저자가 자신의 인생역정 중에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코칭이라는 요즘 알려지기 시작한 특수한 기법에 얹어, 단문의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하나의 지식이 단지 도구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 '워킹지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인생의 모든 답은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찾고 그 답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코칭은 좋은 동반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궁극에는 '코칭'이라는 말도 버려야 한다고 천명한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가장 코칭적인 선언이다. 불교도 코칭도 넘어서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기 때 인간은 완성의 길로 가는 계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보관 스님 (남촌원 자비정사)

코치 허달의 사통팔달

마중물의 힘